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2년 9월호

관찰

사람이 읽는 것

매주 토요일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는 두 종류의 워크숍이 진행된다. 그중에서 오전마다 열리는 전유진의 〈코드 밀 키트〉(2022)는 열 명 안팎의 참여자들이 모여 현대의 기술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주제들을 차례로 점검하고, 각자의 시선과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다. 그 네 번째 시간이었던 8월 13일에는 ‘캡슐 머신 96-22 버라이어티팩’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시간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아트 아카이브를 읽고, 기계가 읽은 비평문을 인간이 독해하며, 기계 문화가 가진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였다. 워크숍 호스트인 정윽 작가는 〈정거장〉 전시에서 선별된 작품의 이미지를 Google Vision API에 적용하여, AI가 판별하는 사물, 색상,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openAI GPT-3에게 비평적 에세이 작문을 주문한 뒤, 영어로 완성된 글을 네이버 파파고가 한글로 번역한 샘플들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기계는 강홍구의 〈해수욕장 시리즈〉(2002)에 관하여 이렇게 읽었다.

〈해수욕장 시리즈〉는 두 장의 사진을 병치한 흑백 디지털 사진 작업입니다. 왼쪽 사진은 해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나일 악어입니다. 이 작품은 두 개의 다른 세계의 병치입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가와 휴식의 세계에 있는 반면, 악어는 위험과 폭력의 세계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의 태양과 파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밝은 색깔의 수영복을 입고 있고 햇빛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치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어는 물의 생물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색이고 길고 치명적인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은 기계가 이미지 속 사람의 형상을 ‘악어’로 읽어버린 당당함 덕분에 작품을 더 들여다보고 또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AI가 쓴 글을 읽고 다시 작품을 보면, 기계가 ‘사람’으로 인식한 이미지에는 여성들이 있고 ‘악어’로 인식한 이미지에는 남성들이 있다. 양쪽 모두 웃통을 훌러덩 벗고 자유롭게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다. 작가는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 어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그곳에는 단체 관광을 오신 시골 어르신들이 주변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옷차림과 포즈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당시의 디지털 카메라 화소의 한계로 풍경의 여러 부분을 찍어서 디지털로 이어 붙인 뒤 파노라마의 작품을 완성했다. 기계의 말처럼 두 장면은 언뜻 대칭이되는 두 세계를 병치해서 보여준다. 두 세계의 다름은 여성과 남성을 식별하는 몸이라는 기호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기계의 말처럼 한 세계가 여가와 휴식이고 다른 세계가 위험과 폭력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단정할 근거는 없다. 더군다나 남성은 악어가 아닌 인간일 뿐이다.

또 다른 예로, 기계는 홍철기의 〈동근 규철의 안쪽〉(2022)에 관하여 이렇게 읽었다.

홍철기의 〈동근 규철 내부〉는 공간, 지각, 그리고 현실의 본질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는 매혹적인 영상 조각입니다. 그 작품은 커피 테이블의 프로젝션 맵핑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시계와 다양한 패키지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영상 자체는 창고, 팬트리, 보일러실, 복도 모퉁이 등 주변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공간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더 가까워서 ‘보기’를 거부합니다. 이 작품이 자리한 다락방 공간도 남서울미술관의 이질적인 양식과 대비돼 조각이 탐구하는 ‘내부’와 ‘외부’의 대조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작품은 평범한 것과 숨겨진 것, 또는 일상적인 것과 다른 세상 사이의 대조에 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중앙에 있는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현실의 순환적 성격을 암시합니다. 게다가, 이 작품은 현실 자체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비디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숨겨진 공간들이 우리가 매일 보는 “보통” 공간보다 덜 실제적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중략)

워크숍에 모인 사람들은 기계가 쓴 글을 읽고 큰 고민 없이 썼지만 꽤 그럴듯한 인상을 주며, 조금 어색한 번역어 투가 오히려 문학적으로 전해진다고 평했다. 사실 시가 커피 테이블로 오독한 반구 형상은 작품을 구성하는 조각이다. 제목이 지시하는 것처럼 작가는 이규철이 나무로 만든 반구 형상의 다면체에 사진을 모자이크로 붙여 완성한 〈공간과 시지각〉에 대한 응답처럼, 아크릴로 된 반구형의 조각을 만들었다. 이 투명한 반구체는 둥글게 감각하는 세상을 재현하기 위한 바탕이면서, 눈이나 지구처럼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인식의 출발점이자, 원하는 것을 투영할 수 있는 ‘크리스탈 볼’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위에 프로젝션 맵핑으로 투사되는 〈언저리〉(2020)는 창고, 휴게실, 보일러실, 복도 모퉁이, 아파트 경비원 등 도시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외된 공간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VR로 제작한 영상이다. 영상 속 공간들은 저마다의 질서로 이루어진 조화와 배치를 가지는데, 기계는 이것을 ‘시간성’이나 ‘안과 밖’처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끌어내고, ‘실제’를 인식하는 방법을 질문하였다. 그런데 기계가 묻는 ‘실제’를 확인하는 순간은 3분 남짓한 영상을 보고, 영상이 담고 있는 공간의 질서와 규칙을 구성한 사람들을 인지하면서 찾아온다.

인간의 작동 방식을 기초로 해서 인간이 만든 정보들을 재조합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기계 문화를 인간에게서 멀리 놓고 비교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열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마음일 것이다. 햇볕에 그을린 사람의 등짝이 악어가 아닌 사람이라 알아보고, 늘 거기 있어도 인지하지 못했던 공간이나 장면들이 어느 날 시선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관찰이라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 것을 뜻한다.



← 강홍구, 〈해수욕장 시리즈〉, 2002(2022)
디지털 사진, 각 61 × 183 cm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위성정거장에서 비엔날레를 읽는 방법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외에도 서울 시내의 여덟 군데 문화공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목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전프로그램의 목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역사에 탑승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거장》의 가장 중심부에는 남서울미술관이 있는데, 이곳은 전시 장소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1996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러 시간대를 교차로 환승하는 커다란 터미널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남서울미술관 바깥의 카페, 제과점, 셀렉트 숍과 공공 문화기관 여덟 곳은 서울의 현재 풍경 가까이에서 비엔날레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간이 승강장 역할을 한다. 미술관이라는 큰 정거장을 중심으로, 작지만 간편하게 드나들며 다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향해 잠시 머무는 이곳을 우리는 ‘위성정거장’이라 부른다. 모든 정거장에서 공통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글림워커스의 〈SMB 리믹스〉(2022)는 위성정거장마다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로 재구성되었다.

오브젝트 서교점은 홍대입구역 근처에 있는 셀렉트숍으로, 작은 박스를 여러 개 쌓아 올린 것 같은 건물의 지하층에서 3층까지 문구, 서적, 의류, 생활용품 등 여러 디자이너의 상품을 한곳에 모아서 판매하는 곳이다. 진열장에 놓인 온갖 오브제들을 살펴보면 감각적이고 개인의 개성이 반영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도시 서울을 느끼고, 다시 그런 소비의 중심지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풍경을 교차해서 떠올리게 된다. 미도파커피하우스는 연희 IC에서 성산동 방향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커피숍이다. 도로변의 건물 2층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는 바쁘게 오고 가는 차량이 한눈에 보이는 커다란 창이 나있고, 창가를 둘러 놓여진 좌석의 앞뒤로 설치된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상이 틀어진다. 이러한 구성 자체가 산발적인 미디어 장치로 송출되는 서울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연출한다.

서울기록원은 은평구에 있는 아카이브 센터로 서울의 정책과 관련한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곳은 기본적인 자원의 보존과,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공공의 기억을 기초로 한 예술품이 제작되는데 주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청은 서울시청 지하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연, 전시, 모임 등을 위한 공간은 물론, 자체적인 콘텐츠를 통해 교육과 휴식 등 다양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청 서울책방 앞의 리어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SMB 리믹스〉는 시민청과 결을 같이 해온 지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장면들을 생생하게 감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운드앤드는 서울시립미술관 주변의 정동길에 위치한 카페 겸 제과점이다. 서울시립미술관 직원들을 비롯하여 미술관과 관계한 서울시 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영상과 이미지가 콜라주하는 여러 데이터 가운데 자신이 관여했거나 관심 있었던 프로젝트의 기록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오잇은 해방촌 오거리 부근에 위치한 카페다. 해방촌 거리가 보이는 1층, 해방촌 언덕길의 건물들을 전망할 수 있는 2층, 그리고 남산을 타고 들어선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3층은 도시

서울의 현재를 높이에 따라 층층이 관람하는 전망대 구실을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시하는 〈SMB 리믹스〉 영상과 포스터는 지난 서울의 모습을 관람하는 망원경 역할을 한다.

콜로라도프로젝트는 서강대학교 주변의 카페 겸 아트샵이다. 공간의 벽면에 설치한 드로잉 작업은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커서(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을 보여주며 카페의 커다란 유리창 바깥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상냥한 손짓을 건넨다.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사물들은 을지로에 있는 카페다. 도심 속의 만능 공장을 자임하는 을지로의 이모저모를 구경하고 다다를 수 있는 이 카페의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시트킷팅으로 작업한 드로잉과 영상을 볼 수 있다.

지난 25년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게 서울은 도시 자체가 비엔날레 주제이자 플랫폼이 되어 왔다. 위성정거장 여덟 곳은 바로 이러한 비엔날레와 도시의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도심 속 삶의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비엔날레의 지난 역사를 씨실로, 그리고 서울의 현재성을 날실로 엮은 ‘위성정거장’에 가면 앞으로 경험할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저마다의 속도로 읽고 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글림워커스, 〈SMB 리믹스〉, 2022
HD 비디오, 이미지 콜라주. 가변 크기

(시계방향으로) 서울기록원, 미도파커피하우스, 콜로라도프로젝트, 라운드앤드 전시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서로에 관한 관찰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정거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진행되는 안데스의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2022)는 크게 두 가지 작가적 상상력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인간 행동의 제약과 그로 인해 갈 수 없는 장소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상실감 회복을 위해, 인간이 실제로 가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는 방법을 상상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에 관한 여러 정보중에서 고유의 파형을 가지고 있는 지진파를 음파로 변환해 들을 수 있을지를 상상했다. 시각적 그래프로 표현된 땅의 파형은 언뜻 음파의 모양과 다를 바 없으니, 그 파형을 통해 땅의 소리를 듣겠다는 호기심에서 출발한 상상이다. 그리고 화음과 화성을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기계로 사운드를 찾고, 이것을 여러 경우의 수로 조합하며 반복적이며 파괴적인 비트를 생산하는 테크노 음악은 이러한 상상을 구체화하는 동력이 된다. 지진파를 음파로 변환하여 땅의 비트를 들어보자고.

이러한 작가의 상상력을 구현하고 실질적으로 음악을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제작 워크숍은, 지진, 파동, 테크노음악, 기계문화와 관련한 연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제작 워크숍 참여자는 지진학자, 테크노 뮤지션, 엔지니어, 그리고 작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멤버들은 새로운 사운드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다. 우선 특정 지역에 관한 지진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화할 수 있는 지진학자가 필요했다. 지진국제관측망(IRIS)처럼 공식적으로 수집된 지진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관찰된 사실로만 구성된 데이터가 아닌 가공된 정보로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파에 관한 정보와 도시의 언더그라운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에이블 턴(디제잉 소프트웨어)을 사용해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테크노 뮤지션이 필요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간의 연결을 위해서 엔지니어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엔지니어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저주파인 지진파를 가청 영역대로 전환해서 테크노 뮤지션이 들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다른 배경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테이블에 불러 모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율가이자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현대 예술가가 필요했다.

제작 워크숍에 모인 인물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 예술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일평생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을 법한 다른 사람들. 그렇기에 음악을 만드는 것에 앞서 서로가 서로에 관한 관찰이 필요했다. 지구 과학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진의 발생 과정부터 지진파의 고유한 모양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테크노 클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테크노 음악을 들려주면서 음악의 분위기나 배경, 그리고 클럽 문화에 대해 논해야 했다. 본격적으로 워크숍이 진행되기에 앞서 작가는 이토록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대화를 얼마나 나눌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우려했지만, 놀랍게도 모든 과정은 불협보다는 존중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서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적절한 단어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각 영역의 공통점을

찾아 대화하는 과정은 누군가가 특별히 주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지진학자가 “왜 지진파로 음악을 만드나?”라고 질문하자 뮤지션 스스로 “지구를 감각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의 만남은 진정으로 성립되었다.

‘예술과 기술의 만남’, ‘융복합 콘텐츠’, 혹은 ‘다학제적 실천’과 같은 수식어들은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거나 공허하게 전해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실험적이면서 도전적인 명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너무도 당연한 현대 미술의 조건이다. 모든 예술은 서로 다른 것의 우연한 조우나 충돌,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 관한 관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에서의 지진학자와 테크노 뮤지션의 생경한 조우가 하나의 예일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지질학적 테크노 음악이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효용이나 반응을 찾지 못할 수 있다. 이 음악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그다지 매끄러운 사운드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를 낯선 만남으로 밀어 넣고 다른 서로에 관한 이해와 관찰을 종용 받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학제적 충돌이고 문화적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약간의 경계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의 영역을 탐색하고, 다름을 학습하며, 상호 공유하고, 이해하기. 이 과정은 설사 그 결과과 무용할지라도 꼭 필요하며, 그만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 안데스, 〈지질학적 테크노: 땅의 비트를 들어라〉, 2022

프로그램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커미션

작가 제공

(좌) ‘테크노의 역사를 따라서’, 강사: 이대화, 2022년 8월 6일

(우) ‘테크노 음악의 연주와 제작’, 강사: 이동화, 2022년 8월 13일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프로그램 장면, 2022

사진: 이의록, 박시내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백지숙
글,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온라인 구독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 홍철기, 〈가벽〉, 2022
비디오 조각, 253 × 600 cm(조각);
5분(프로젝션 맵핑 영상), 2채널 사운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다락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9월호 『관찰』

사람이 읽는 것

위성정거장에서 비엔날레를 읽는 방법

서로에 관한 관찰

홍철기, 〈가벽〉, 2022

비디오 조각, 253 × 600 cm(조각); 5분(프로젝션 범위 영상), 2채널 사운드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진프로그램 커미션

작가 제공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다락 전시 전경, 2022

사진: 이의록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